

# 비석도 없는 망국의 황자 이곳에 잠들다

## 64 의친왕 이강·김수덕 여사의 묘

의친왕1877. 3.30~1955. 8.15(79세)  
김수덕 여사 1881 ~ 1964(84세)

2008년 8월 9일, 전북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나주 임씨 고택 사랑채에서 도난당한 '금사정(鎭沙亭)' 현판이 회수됐다. 이 마을 최모씨(65·여)가 나주 임씨 고택 대문 앞에 놓여 있는 현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훔쳐간 현판을 범인이 범행 장소에 놓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범행 흔적을 찾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이 현판은 고종 셋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李堯) 공의 친필로, 고택 주인 임광순(71세)에 의해 도난 신고됐다. 이 현판은 임씨의 5대조인 증조부의 아호를 따 1919년에 건조된 사랑채에 가로 140cm, 세로 40cm 크기로 걸려 있었다.

의친왕이란 존재가 잠시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다. 영친왕이 묻힌 홍유릉 뒷편 한적한 골짜기에 위치한 의친왕과 왕비 김씨가 잠든 합장묘에는 비석도 안배판도 없다. 두 개의 망주석, 조그마한 혼유석, 장명등이 전부다. 홍유릉 관리소에 근무하는 친절한 청년의 안내가 없었다면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었다. 왕조의 최후는 이렇게 쓸쓸하다.

1955년, 의친왕은 한국전쟁의 참화 희생자로서 어수선한 중에 79세를 일기로 작고했다. 200여만 명이 죽은 난리를 겪은 후라 의친왕의 죽음을 쟁겨 줄 세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사유지에 가매장됐다가, 서삼릉 한 자락으로 옮겨져 방치됐다가, 왕비가 있는 이곳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홍유릉 뒷편으로 이장됐다. 의친왕의 5녀 이해경씨의 노력으로 1966년 부모를 한 곳에 합장했다. 왕조를 포기하고 독립을 위해 젊음을 불태운 왕조의 후예는 지금 세상의 관심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져 누워 있다.

"하루는 부모님 묘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사동공의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의친왕이 잠들어 계신 서삼릉을 찾았다. 그러나 그때 나의 놀라움은 형용할 길이 없었다. 물론 추운 겨울 날씨 탓에 묘소의 주변이 삭막하게 느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서삼릉의 광경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아프게 했다.

그 당시 묘소에는 봉분이 두 개가 나란히 있었는데 오른쪽은 아버지 의친왕의 묘였고, 왼쪽은 아버지를 낳으신 할머니 장귀인(張貴人)의 묘였다. 그리고 두 분의 묘 가운데 '장귀인(張貴人)'이라는 커다란 비석이 있었으며, 왼쪽 묘 앞에만 상석(床石)이 하나 있었고, 석등(石燈)은 세 동강이로 부러져 땅에 평갈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 묘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그 묘가 바로 의친왕의 묘라고 설명을 듣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의 묘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아무리 가매장(假埋藏)이라지만 묘자(母子)를 부부(夫婦)처럼 같이 모시고 있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의 아버지 義親王> 중에서 : 이해경 지음 1997년 6월 20일 발행, 도서출판 眞.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후 중국에 망명한 지식자들은 독립운동의 구심체로서 망명정부를 세울 공리를 했다. 이상설, 신규식, 박은식 등은 신한혁명당을 만들고 민족 독립을 구심시키려면 고종황제를 망명시켜 받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의 외교부장 성낙형을 국내에 침투시켰으나 활동 중 발각되고 말았다. 하지만 고종이 아니더라도 왕족 중 누군가를 받들어야 민족 구심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1910년대 독립운동의 특색이었다.

그 두 번째 시도가 고종황제의 셋째 왕자요 순종황제의 아우인 의친왕 이강을 상해로 탈출시켜 망명하려는 대동단 사건이다.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인 1919년 11월 10일 아침, 당시 조선총독부 고위 경찰 간부 지바가 조선 귀족 감시를 맡고 있는 사복경찰관들을 모아놓고 일장 훈시를 하고 있는데 제3부 경위반주인이 다가와 귀족말로 정보를 전했다.

어젯밤 의친왕 이강 전하가 궁을 탈출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밤 10시쯤 전하가 살고 있는 저택의 후문 경계를 맡고 있는 시시라는 형사가 키가 큰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근중 하나가 전하 같아서 미행했는데 명월관 근처에서 놓쳤다는 것이다. 지바는 경위 하나를 보내어 왕족 감시 담당관인 이왕직의 구로사가 사무원에게 전하가 집에 계시는지 여부를 확인시켰다.

구로사끼는 직접 찾아가 왕비를 뵈고 물었더니 아무 일없이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행여나 하여 내시를 시켜 결재서류를 돌려 보냈더니 결재를 다음으로 미루셨다는 것이다. 결재를 미룬 것이 전하가 직접 나타나 한 말인가가 누가 전한 말인가를 확인했더니 후자라는 것이다. 곧 전하를 직접 본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전하가 상해로 탈출해 독립 세력에게 업힐 것이라는 정보가 있는지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하를 직접 뵈고 오라고 지시했다. 비를 만나 전하를 폭탄에 해달라고 조르자 실패했다. "실은 어젯밤 전하는 집을 나가셨다'고. 중대사건이 벌어지고만 것이다. 즉시 경무국장으로 하여금 조선 전국은 물론 일본, 만주, 시베리아, 상해에까지 수배령을 내렸다.

탈출 당시상황을 회고하는 의친왕 비 김수덕 여사에 의하면, 당시 의친왕은 사동공에 살았는데 사무원이 물길래 낮 12시까지 낮잠 자고 계시다고 사무관을 속여 탈출을 공모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명월관 지점 주인 황원균이라는 자가 경찰에 출두해, 기생들로부터 이강 전하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잡히는 것이 있어 찾아왔다면 어젯밤 전하는 명월관까지 왔다가 인력거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고 진술했다. 그 인력거 인부를 찾아 취조하니 공평동 빈집 앞에서 내려드렸다는 것이다. 그 빈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 만주 단둥에서 경찰정보가 날아들었다. 전하를 단둥역에서 발견해 모속소에 연금중이라는 것이다.



초라한 의친왕의 묘(아래), 의친왕 묘를 지키는 입을 벌리고 있는 고석의 석호(위).

## 지혜로운 어머니와 강단있는 조부 있었다면 달라졌을 삶 왕정복고 두려워한 이승만 정부에 의해 비참하게 살아

일본 경찰은 전하께서 전혀 탈출 의사가 없는 남지라는 쪽으로 몰아갔다. 전하가 뜬에 곤한 것을 안 전라도의 한 부호가 남도에 있는 전하의 어정 어업권을 담보로 3만원을 빌려 드리겠다고 대리인이라는 이만하가 접근해 왔다. 이에 전하는 그 돈을 받으러 김삼복이라는 종 하나만을 데리고 명월관을 거쳐 약속장소인 공평동 빈집으로 갔다.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만하는 가방을 열어 백 원 봉지를 보여 드린 다음 지금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로 가셔야한다고 설득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돈봉지는 백 원짜리 한 장만을 위에 얹은 신문지 오린 쪽지로 판매했다. 그 순간 빈 집에 숨어있던 5~6명의 청년이 권총을 들고 포위해 상해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상은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조선통치비화> 중 당시 고위 수사 책임자들의 회고에서 추린 것이다. 실은 어정 담보를 구실로 접근해서 상해 탈출을 모의해 실전을 약속하는 날에 공평동 빈집에서 만나 5~6명의 단원의 경호 하에 세검정 고개를 넘어 수색역에서 만주행 기차를 탄 것이다. 이만하는 전하를 상해에 모셔다가 망명정부를 세우려던 대동단의 우두머리 전하이다. 사실대로 전하가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전하를 범정에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 않아도 3.1운동으로 민심이 사나워져 있는 당시 정국을 악화시키는 약재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거기에는 왕족을 모셔와 중국 땅에 망

명정부 수립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국민이 알면 민심이 그러로 쏠릴 것이 자명한 일임에 탈출이 아니라 납치 쪽으로 몰아가 수밖에 없었다.

강제 송환된 이강 전하를 여업의 살던 집에 두면 언제 탈출할지 모르는 일이라 연금시킬 공리를 했다. 총독관저 구내에 녹천정이라는 작은 집이 있었다. 이모가 술잔치를 즐겨 벌였던 집으로 당시는 비어 있었다. 여기에 연금시켰다가 일본으로 이주시킬 작정으로 모든 공작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하가 끝내 거절해 일본행은 좌절되고 말았다.

이강 전하의 생모인 장귀인은, 이은 전하의 생모인 엄귀인만큼 눈치 빠르고 처신에 능하지 못했다. 두 분 다 귀인 시절에 고종의 사랑을 받고 민비의 질투를 받았는데 엄귀인은 그런 기미만 보이면 아슬아슬하고 아무도 모르는 여업에 숨어버렸다. 그러기를 10여 년 해 결국 을미사변으로 사랑을 정취하고 만다. 이에 비해 장귀인은 낯은 아들과 함께 궁밖에 쫓겨나 살다가 혹독한 린치 끝에 죽음을 당했다.

이강은 고아 신세가 돼 민비의 박해로 풀잎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 자랐다. 성장해서는 엄귀인과 그녀의 소생인 이복동생 이은에 치어 유학이라는 미명으로도 일본이나 미국에 가 고독한 젊음을 보내야만 했다. 미국에 유학했던 1903년 3월 1일자 '뉴욕 헤럴드'지는 의친왕이 놀라운 성령을 냈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 조선의 왕자는 미국 시민

의 자유와 독립심에 매료돼 그의 국내에서의 자유롭고 독자적인 활동을 위해 왕국의 왕권 계승권과 왕좌에 관련된 어떤 권한도 포기한다'고.

이 신문 기사는 당시 의화군 공 의친왕이 다니고 있던 대학의 여자학부의 활발한 학생 엔지니어 글라함 양과의 염문 때문에 왕권 계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이미 그때에는 알비 소생의 영친왕 이은에게 왕위 계승권이 결정돼 있었다. 고종을 닮아 무척 성격이 유약했던 그는 이와 같은 고된 환경에 단련돼 성숙해질 듯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자포자기 끝에 주색에 깊이 빠져 방탕무리하다는 말도 무척 들었다.

그의 큰 아들 이강은 이렇게 아버지를 회고한다. "아버지는 생활이 문란하기는 했지만 암울한 천성이 아니었다. 일찍 중에 머리는 명석한 편이었다. 만약 장귀인에게 엄귀인(엄비)만한 총명함이 있고 조부가 보다 강한 성격과 소신의 소유자였다면 아버지가 왕통의 계승자는 못되었더라도 꽤 다른 양상이 벌어졌을 것이다. 평생 주변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으나 오로지 생모의 비참한 죽음을 대해서는 저번 반주라도 할 적에는 심히 탄탄하고 슬퍼했다."

광복 후에도 의친왕의 비극은 몇칠 않았다. 왕정복고를 두려워한 이승만 대통령의 왕실 재산 국유화와 왕족을 천대하는 바람에 정부를 원망하며 등지고 살아야했고 1.4후퇴 때 부산에 함께 궁박에 쫓겨나 살다가 혹독한 린치 끝에 죽음을 당했다.

이강은 고아 신세가 돼 민비의 박해로 풀잎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 자랐다. 성장해서는 엄귀인과 그녀의 소생인 이복동생 이은에 치어 유학이라는 미명으로도 일본이나 미국에 가 고독한 젊음을 보내야만 했다. 미국에 유학했던 1903년 3월 1일자 '뉴욕 헤럴드'지는 의친왕이 놀라운 성령을 냈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 조선의 왕자는 미국 시민

글=이우상(소설가 asdf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한달 유지비 4,000원**  
(하루 8시간)

**전자파 걱정 끝**  
초박형 보일러 타입

**장수돌침대 만의**  
믿을 수 있는 A/S

다년간의 연구끝에 숙면과학의 결정체 온수매트 개발!!

2009년 신상품!

**장수돌침대 온수매트**

첨단 고효율 PTC방식

"진짜 장수돌침대" 고객이 아할때까지!!

**이젠 바빠야 합니다.**  
전자파 없는 잠자리로...

**뜨끈~뜨끈 후끈~후끈!**

오로지 온수로만~  
최고 80도!  
그 위에, 가마에 구운  
황토보울을 딱딱! 찜숯을 딱딱 채워~  
황토찜질, 솜뽕까지!

■ 규격 : 2인용 : 1450 X 2000  
1인용 : 1000 X 2000

**고급형** 2인용 248,000원  
1인용 238,000원

**별다섯! 장수돌침대, 기술력의 개가!**

**장수돌침대 온수매트는... 고객이 아할때까지!!**

하나 **순수, 물!** 온수를 이용한, 한국형 매트!  
둘 **자체기술진의 숙면과학 실현!** 전자파에 대한 걱정!  
셋 **초절전 기술로, 난방비 절약!**  
넷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A/S**

나방비 걱정 끝! 전자파 걱정 끝!  
1) 아지도, 그 바싼~ 기름값, 가스값을 낭비하십니까?  
이젠, 보일러만큼 후끈후끈하게 따고!  
유지비는 훨씬 더 저렴한! 장수돌침대 온수매트에서 주무십시오!  
2) 본인이 싸비시고, 정말 좋다고 인정되신다면,  
부모님게도 사드리고, 자녀들에게도 꼭~ 사주십시오.

장수산업 수상내역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INNOBIZ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기술혁신우수기업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수상

※주의 : 타사인테리어 및 전시장 구입시 제품을 못받거나 A/S가 되지 않습니다.

**www.onsu-mat.com**  
**www.장수온수매트.com**

**JANG SOO** (주)장수산업 온수매트 사업부  
무료 전화 **080-788-7878** 농협 943-12-426130 조운성